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22호)

발행일 2010년 8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제 322 호

스산의 숨결

2010. 8. 10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월간 스산의 숨결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서산문화원



목차

- 03 우리 민족의 기백과 혼은 어디로...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개항 이후 서산지역 천주교신앙의 확산 (김정환 / 내포교회사연구소장)
- 08 8월의 표준영정 (우륵)
- 10 칠월칠석
- 13 사마천의 『사기(史記)』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16 백제시대 분구묘(墳丘墓)의 보고 서산 (이강열 / 학예연구사)
- 18 오토캠핑의 매력... (김산환 / 여행레저 전문가)
- 21 아이돌(Idol) (최민우 / 대중음악 평론가)
- 24 아우내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김준기 / 아우내문화원장)
- 26 떡 박물관
- 28 향기로운 배움의 터 다도교실 (강명희 / 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 30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강생모집
- 32 박첨지 놀이 공연 (백진숙 / 서산서림유치원장)
- 33 문화원소식



표지 이야기



용현계곡

서산마애삼존불상으로 유명한 용현계곡이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울창하여 여름에 가족들과 휴양하기 좋은 곳이다.



저희 (주)다인투어는 차별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해외여행, 국내여행, 항공권발권, 비자대행 및 허니문, 단체, 가족여행에서
 국내외호텔 및 펜션예약까지 여행자 여러분의 동반자로 새로운 여행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스캐치
(주)다인투어

TEL: 041-666-2882 FAX: 041-681-9149
 충남 서산시 동문동 261-1번지 삼일상가 3층 301호

전세계가 우리의 무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백과 혼은 어디로...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지난 한미 연합훈련 때의 일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 우호차원의 작전 훈련인데 일본 자위대 지도부 몇 명이 동참하여 관망한 사례가 있어 지금도 그 분함이 삭여지질 않고 있다. 그것도 독도의 영유권으로 가끔씩 말썽을 피우고 있는 즈음이라서 더욱더 그러하다. 특하면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 민족간의 갈등이 쌓일대로 쌓여가는데 왜 그속에 일본을 끼워 넣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언짢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제 우리는 대마도 반환 요구에 돌입해야하며 역사적 근거에 의한 학술발표등 대국민 홍보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된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겨우 53km밖에 안되지만 일본 큐슈까지는 147km로서 거의 3배나 멀리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이 분명하다고 본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옛 문헌인 환단고기(桓檀古記) 또는 일본의 기록인 대주편략(對州編略), 그리고 13세기 말 일본서적인 진대(塵袋), 또한 명나라 사신이 제작한 중국의 고지도(古地圖), 조선팔도총도(朝鮮八道總圖)등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는데 왜 우리의 역사학자 또는 정치지도자들은 영토 찾기에 신경조차 안 쓰는 것일까.

해방 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대마도 반환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일본에서도 계속 강력반발 했지만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 후 국회에서도 대마도 반환요구 결의안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소중한 역사를 잊어버린 채 독도문제만 나와도 전전긍긍 한단 말인가.

우리 민족의 강력한 애민애족의 구국정신은 어디로 갔으며 불꽃처럼 타오르던 민족혼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대국민 역사의식고취, 이념이 상실된 애국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러시아 연해주까지 고구려 땅으로 밝혀졌는데도 왜 우리는 고개를 돌린 채 남의 일로 간주하는 것일까? 대국민 정신교육이 강화 되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역사교육이 잘 이루어져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애족의 국가관을 사명처럼 키워 줘야 하지 않을까...

개항 이후 서산지역 천주교신앙의 확산

김 정 환
(내포교회사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서산지역의 공소들
3. 서산 본당의 설립
4. 본당의 서산 이전과 분가
5. 주목할 활동들
 - 1) 출판·교육활동
 - 2) 순교자 현양운동
6. 맺음말

4. 본당의 서산 이전과 분가

서산지역 천주교가 확산되었다고 해서 서산 도심까지 쉽게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후반 계속된 박해의 영향과 일제강점기의 제약들은 상당기간 천주교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지역 중심까지 천주교가 확산되어 도심에 본당이 세워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박해의 영향으로 천주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계, 일제강점기 동안 천주교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탓에 도심에 본당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천

에는 1936년, 천안에 1939년, 당진에 1939년 등 1930년대에 들어서야 본당이 자리할 수 있었다.

서산에도 이런 영향이 있던 탓에 현재의 동문동에 서산 본당이 자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37년 10월에야 비로소 성당을 짓고 서산 도심에 자리할 수 있었다. 본당은 서산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어지는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제는 1939년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징용령을 내렸다. 같은 해에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일본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 종교 활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고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원뿐만 아니라 자원 공출까지 이어져 서산 본당에서는 성당 종을 공출 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동문동 본당에는 상흥리 공소에서 옮겨간 유명한 프랑스제 종이 있었다. ‘세사리’ 종이라 불리던 이 종의 공출을 피하기 위해 성당 뒤편 대나무 밭에 숨기고 안면도 공소에 있던 종을 대신 공출했다.

해방 후 서산지역 천주교회는 안정을 되찾는 듯하였으나 곧 닥쳐온 6·25전쟁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1950년 9월 제7대 본당 주임인 콜랭(Colin) 신부가 공산군들에 체포되어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피살되었다.⁵⁾ 옛 본당이 있던 상흥리 공소에서는 백낙선 회장이 체포되어 면소재지인 음암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전쟁 이후 잠시 침체기를 겪었으나 곧 폭발적인 신자 증가가 있었다. 전쟁으로 정신적 공허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었고, 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가 천주교회를 통해 분배되면서 서산 본당의 신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55년에는 성당을 증축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서산지역의 천주교는 확산을 거듭하여 여러 본당이 새로 설립되었다. 1964년 태안 본당이 서산 본당에서 분가된 것을 필두로 하여, 운산(1974), 해미(1985), 서산 석림동(1987), 대산(1989), 서산 예천동(2004)에 본당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5. 주목할 활동들

1) 출판·교육활동

서산지역 천주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출판·교육활동에 눈을 떴다. 1937년 1월 본당이 상흥리에 있을 때 『천주교 요리』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아동들을 위해 등사하여 만든 이 책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삽화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유년반, 소년 1·2반, 고등반, 특별반으로

5)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교구 60년사』, 2008, 24~26쪽.

나누어 단계별 교리 공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출판물이었다. 이 책은 1939년에 다른 지역의 본당들에 무료 배포되기도 하였다.⁶⁾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서산 본당의 전신인 수곡 본당에서 시작된 회장 피정이다. 회장 피정은 1912년 12월 성탄절을 맞아 수곡 본당에서 폴리 신부의 주도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⁷⁾ 성당에 며칠간 머물며 함께 기도하고, 교리 문답과 회장의 본분 등을 배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기교육과정이었다. 이 제도는 후일 한국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58년 대철중학교(운산면 갈산리)의 설립도 주목해야 한다. 1956년 9월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인수하여 천주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것이 학교 설립의 시작이었다.⁸⁾ 중등교육 과정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천주교 안에서는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 설립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

2) 순교자 현양운동

서산지역에는 천주교 순교지로 잘 알려진 해미가 있다. 이런 까닭에 서산지역 천주교 안에서는 일찍부터 순교지 발굴과 순교자 현양이 시작되었다. 해미 순교지 발굴은 1935년에 시작되었다. 병인박해 때 해미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한 노인들이 증언함으로써 해미 조산리에서 순교자들의 유해를 일부 찾을 수 있었다.⁹⁾ 그 당시에는 해미에 천주교 소유의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견된 유해들은 상흥리 공소 뒤편 백씨 문중 묘로 안장되었다.

순교자 유해가 발굴되고 상흥리에 안장된 이후 서산지역에서는 순교자 현양 운동이 활발하였다. 기해박해 백주년이 되는 1939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상흥리 순교자 묘역을 지속적으로 참배할 것이 권고되자 많은 이들이 묘역을 찾았다.¹⁰⁾ 1940년 서산 본당에서는 순교 복자들을 위한 3일기도가 열리기도 하고, 해미 성지까지 도보성지순례를 하는 등 순교자 현양에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¹¹⁾ 1956년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데 사용되던 해미 자리개 돌을 서산 본당 구내로 옮겼고, 1977년에는 상흥리 순교자 묘역에 돌 제대가 봉헌되어 순교자들의 넋을 기렸다.

서산지역에서 순교자 현양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해미는 순교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들어 해미를 성지로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 1985년부터는 해미 성지 가꾸

6) 『경향잡지』 905·6호, 294쪽.

7) 『경향잡지』 269호, 18쪽.

8) 『경향잡지』 1081호, 183쪽.

9) 방윤석, 『상흥리 '병인년 해미 순교자 묘' 발굴에서 이장까지』, 『교회와 역사』 397호, 9~11쪽.

10) 『경향잡지』 911호, 457쪽.

11) 『경향잡지』 917호, 20쪽; 922호, 139쪽.

12) <가톨릭신문> 1985년 7월 7일, 7면.

기 운동이 전개되었다.¹²⁾ 이후 해미가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1995년 9월 상흥리에 모여져 있던 순교자 유해들은 본래의 자리인 해미로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맺음말

박해가 끝난 이후 서산지역에는 선양골, 황골, 소길리(금학리), 가재(상흥리) 등의 교우촌이 있었다. 이중 소길리, 상흥리 교우촌은 박해시대부터 있던 곳으로 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여 후일 공소로 전환되어 서산지역 천주교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산 본당의 전신은 1908년 수곡(결성 공리)에 설립된 본당이다. 이 본당이 1917년 소길리로 이전함에 따라 서산지역 안에서도 본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시대 환경의 변화로 소길리에 있던 본당은 1920년 상흥리로 이전되었고, 천주교가 서산 도심으로도 확산됨에 따라 1937년에 서산 동문동에 최종적으로 서산 본당이 자리를 잡았다. 서산 본당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시련을 겪었으나 이 지역 천주교 확산의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서산지역 안에는 현재 6개의 본당이 자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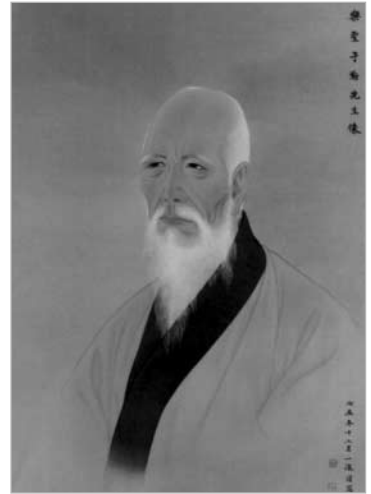
서산지역에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출판·교육활동에 기억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 일찍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단계별 교리책이 발간되었고, 천주교 지도자들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인 회장 피정이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58년에는 운산에 대철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농촌지역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서산지역 천주교의 특징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이곳이 박해시대의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순교지라는 점이다.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지로 이름난 해미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곽에는 신자들이 피난하여 정착하기에 용이한 곳들이 분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은 후일 천주교가 서산지역에 정착되면서 순교자 현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35년 해미의 순교자 유해 발굴 이후 시작된 순교자 현양은 신자들에 의해 지속되었고 이것이 해미가 중요한 성지로 자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우륵

생몰년대 미상. 신라의 악사

● 본래 대가야국의 성열현 사람으로 가실왕의 총애를 받았다. 가실왕의 뜻을 받들어 12현금을 만들고, 이 악기의 연주곡으로 지명에서 얻은 악상으로 12곡을 지었다. 551년(진흥왕 12) 신라에 투항, 제자 이문과 함께 낭성에 살다가 진흥왕에게 명성이 알려져, 하림궁에서 이문과 함께 새 곡을 지어 연주했다. 이에 감동한 진흥왕의 배려



박연,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악성으로 추앙받고 있다.

● 소질에 따라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그 후 진흥왕에 의하여 가야금곡이 궁중 음악이 되었고, 하림조, 눈죽조의 2조가 생겨 모두 185곡의 가야금 곡이 남게 되었다. ● 가야금처럼 우리의 심정을 속속들이 대변해주고, 포괄적으로 한국의

로 국원에서 살게 되고 552년 대내마 계고와 법지, 그리고 대사 만덕 등 세 사람을 그

아름다운 예술미를 적나라하게 들어내 주는 것은 없다. 그만큼 가야금속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속멋, 우리의 심미안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가야금은 일년열두달을 상징하여 12 줄을 엮었고, 오동나무 공명통의 윗부분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뜻 것이요, 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나타냈다고 한다. 동양 지향적인 세계음악계의 조류속에 각광받을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가야금은 국제적 악기로 등장할 잠재력이 농후한 악기임에 틀림없다.

충주의 대문산 기슭의 금휴포와 그 위의 탄금대는, 그가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 한다.

[文獻] 三國史記, 三國遺事, 李惠求 : 于勒 等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 1977년

제작작가 : 일랑 이종상

영정크기 : 81cm X 113cm

소장지및소장인 : 국립현대미술관





칠월칠석

■ 칠석의 어원

음력 7월 7일을 칠석(七夕)이라 한다. 이 날은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애뜻한 사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여 내려온다.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결혼하였다. 그들은 결혼하고도 놀고 먹으며 게으름을 피우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태우면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은 까마귀와 까치 들은 해마다 칠석날에 이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었으니 그것이 곧 오작교(烏鵲橋)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입을 만나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진다. 그래서 칠석날 세상에는 까치와 까마귀는 한 마리도 없으며, 어쩌다 있는 것은 병이 들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또 까마귀와 까치는 이날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지게 된다고 한다. 칠석날 전후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일도 많은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 준비를 하느라고 먼지 앓은 수레를 씻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물이 인간 세상에서는 비가 되어 내리므로, 이 비를 '수레 씻는 비' 즉 '세차우(洗車雨)'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여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비를 '눈물 흘리는 비', 곧 '쇄루우(灑淚雨)'라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한대(漢代)의 괴담(怪談)을 기록한 책인 《재해기(齋諧記)》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7월 7일 저녁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졌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성립되었다.

즉 천문학상의 명칭으로 견우성(牽牛星)은 독수리별자리[鷲星座]의 알타이어(Altair)별이고, 직녀성(織女星)은 거문고별자리의 베가(Vega)별이다.

■ 칠석의 풍속

칠석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여자들이 길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녀성에게 비는 것이다. 이 날 새벽에 부녀자들은 참외, 오이 등의 초과류(草菓類)를 상위에 놓고 절을 하며 여공(女功:길쌈질)이 늘기를 빈다. 잠시 후에 상을 보아 음식상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하늘에 있는 선녀가 소원을 들어주었으므로 여공(女功)이 늘 것이라고 기뻐한다. 혹은 처녀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은 다음, 그 위에 고운 재를 평평하게 담은 쟁반을 올려놓고 바느질 재주가 있게 해 달라고 비는데, 다음날 재 위에 무엇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영험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풍속은 직녀를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래는 칠석날 밤에 궁중이나 민가의 부녀자들이 바느질감과 과일을 마당에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있게 해 달라고 널리 행하던 중국 한대(漢代)의 결교(乞巧)의 풍속을 따른 것이다. 이 풍속은 당대(唐代)에 와서 주변 민족들에 전파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칠석 풍속은 중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밀전병과 햇과일을 차려놓고, 부인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수명장수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한다. 또 이북지방에서는 이 날 크게 고사를 지내거나 밭에 나가 풍작을 기원하는 밭제(田祭)를 지내기도 한다.

중부지방에서는 '칠석맞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골무당에게 자녀의 무사 성장의 기원을 부탁하는 것이다. 무당은 물동이를 타고 기원의 상징인 명다리를 내어 바람에 불리고, 다시금 무사 성장의 기원을 한다. 한편 7월이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김매기를 다 매고 나면 추수때까지는 다소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장마를 겪은 후이기도 한 이때, 농가에서는 여름 장마철 동안 눅눅했던 옷과 책을 내어 말리는 풍습이 있다. 이를 썬서폭의(書曝衣)라 하는데, 이 날은 집집마다 내어 말리는 옷과 책으로 마당이 그득하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7월 7일조에도 인가에서는 옷을 햇볕에 말린다 하여 이는 옛날 풍속이라 하였는데, 이 날에 내어 말리는 옷과 책의 수량에 따라 잘살고 못사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칠석은 원래 중국의 속절(俗節)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공민왕(恭愍王)은 몽고 왕후와 더불어 내정에서 견우·직녀성에 제사하였고, 또 이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군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다양한 생활주기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오늘날 칠석의 풍속은 다만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동심의 세계에 꿈을 부풀리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밀국수〉

■ 칠석의 시절음식

칠석의 시절음식으로는 밀국수와 밀전병이 있다. 이 날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은 철 지난 것으로서 밀냄새가 난다고 하여 꺼린다. 그래서 밀국수와 밀전병은 반드시 상에 오르며, 마지막 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칠석인 것이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사마천의 『사기(史記)』

〈태사공사기〉를 중심으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본기(本紀) 12편, 표(表) 10편, 서(書) 8편, 세가(世家) 30편 및 열전(列傳) 70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0편이고 글자수 52만 6천 5백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중국 고대 역사서다.

『사기』 이후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사기』를 모범 삼아 역사책을 편찬했다. 특히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의 형식으로 역사의 굵직한 흐름과 이에 연동하는 역동적인 세부 사건들을 묘사하는 방식은 '기전체(紀傳體)'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스타일로 각광 받았다.

사마천은 어떻게 이런 독특하면서도 경이로운 저술을 남길 수 있었을까. 보통 여기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극적인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 요컨대 사마천이 거세형(宮刑)을 받고도 치욕스럽게 살아남아 『사기』를 완성했다는 것! 하여 사마천의 입장을 앞에 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묻는다.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치욕스럽지만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 명예를 위해서는 죽어야 하지만, 선친의 유언과 또 『사기』 집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그것이 사마천의 본의였든 아니었든, 이미 황제의 심기를 거스른 사마천에게 삶을 선택할 권리는 없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사마천에게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사마천에게는 오직 어떤 죽음인가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사마천이 싸운 것은 죽음의 무의미함에 대한 싸움이었지, 삶과 죽음의 대결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마천의 운명을 가른 이른바 '이릉(李陵) 사건'은 사마천이 태사령이 된 지 8년이 지난 천한(天漢) 2년(B.C 99)에 터졌다. 이릉은 무제의 '무리한' 흉노 토벌 작전에 희생당한 측면이 강하다. 어쨌든

이릉은 충분히 용감했고 놀라운 지략을 발휘했지만 결국 흉노에 사로잡힌다. 조정의 중신들이 한무제의 비위를 맞추느라 ‘없는’ 이릉을 닦아세울 때,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했다. 사마천이 이릉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젊은 날부터 이릉을 알고 있었지만 단지 그 비범한 재주를 높이 평가했던 것일 뿐. 충성스럽고 용맹한 국가적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큰 허물이 아니다. 한무제도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한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마천은 재수가 없었다. 이릉의 전공(戰功)을 칭찬한 것이 공교롭게도 또 다른 지휘관이었던 이광리(李廣利)에 대한 비판으로 읽혔던 것! 이광리는 당시 한무제가 총애하던 애첩의 오빠이자, 당시 무제가 가장 신임하던 장군이었던 것이다.

사마천의 죄명은? 황제 무고 반역죄! 결과는? 사형! 이때 사마천의 나이는 마흔 일곱이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엄청난 돈을 내거나 궁형(宮刑)을 받거나! 이런 것도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마천은 후자를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사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부터 부귀하다고 해도 그 이름이 인멸된 사람이 많지만 단지 탁월하고 비상한 인물들만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을 찬양받고 있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유리(羨里)에 구금되어 『주역』을 부연해서 풀이하였고, 공자는 재액을 만나 『춘추』를 지었습니다. 굴원은 조정에서 쫓겨나 『이소』를 썼습니다. 좌구명은 눈이 먼 뒤 『국어』를 저술했고, 손자는 다리를 질리는 형벌을 당하고서 병법서를 편찬해내었습니다. 여불위는 축 땅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여람』이 후세에 전하고, 한비지는 진나라에 사로잡혔기에 『세난』과 『고분』 두 편을 저술했습니다. 시 삼백편의 대부분은 성현이 발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 속에 울분이 맺혀서 풀리지 않고, 마음 통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여 자신의 생각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태사공자서>

사마천은 『열전』의 마지막에 <태사공자서>, 즉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왜 궁형을 무릅쓰면서까지 『사기』 저술에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치욕스런 삶을 연명하면서까지 매달렸던 『사기』의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사기』를 처음 저술하던 초창기 사마천이 아니다. 이제 사마천은 발분(發憤)한 저술가다. 사마천은 마음 속에 울분이 맺혀 풀리지 않고, 마음 통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까닭에, 썼다!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글쓰기의 전범으로 불리게 되는 사마천의 글쓰기가 참을 수 없는 울분의 폭발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 ‘꺼리’를 던져준다.

아이러니하게도 궁형 이후 사마천은 중서령(中書令)이란 높은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기』를 저술

했다. 요컨대 그는 귀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귀한 몸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사마천에게 특별한 감격이 되었을 리 없다. 환관은 환관일 뿐이다. 녹봉 이천석의 고위 관직이 현세적 욕망에서 보면 출세한 위치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사마천에게는 『사기』를 저술하는 것 외엔 어떠한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기』는 그의 죽음을 알릴 유일한 출구였다.

『사기』는 발분하여 쓴 저술이다. 궁형 이후 환관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미 죽음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도 변하고 체형도 변화해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시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욕과 분노는 커져갈 것이므로! 진정한 글쓰기는 그렇게 발분과 죽음을 뚫고 비로소 폭발하는 것이다.

130권, 52만 6천 5백자라는 방대한 분량의 『사기』를 모두 완성할 때까지, 사마천은 삶을 견뎠다. 그리고 『사기』의 완성 이후(56세), 그의 행적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마치 그렇듯 자신은 오직 『사기』와 더불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리라도 하듯이!



다양한 「사기」 번역서들



글쓴이 소개

문성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墳丘墓)

최근 서산의 경우 발굴조사하는 유적중에서 백제시대 분구묘(墳丘墓)의 확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분구묘 유적은 2005년 음암 부장리 유적에서 13기가 발견된 이래 2005~2006년 해미 기지리 유적에서 60기, 올해 동서간선도로 예정부지인 예천동에서 103기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분구묘가 확인되는 서산지역은 백제시대 지방세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분구묘라는 묘제는 시신을 묻는 무덤의 종류의 한 종류로 시신을 안치한 다음 그 위에 흙을 쌓아올리거나 쌓아올린 봉분을 수직으로 파서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는 무덤이다.

음암 부장리 유적의 경우 백제고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음암 부장리와 같은 대단위(13기) 분구묘 유적이 처음 발견되었다. 금동관과 같은 최상급 무덤에서나 발견되는 유물이 출토되었고, 학술적 중요성으로 인해 2006년 11월 6일 사적 제475호로 지정되었다.

분구묘는 모두 13기가 확인되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0~40m 정도로 네모진 형태이다. 봉분은 남아있는 상태로 볼 때 약2m정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봉분을 높지 않게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장리유적 전경

분구묘에는 1~10기의 무덤이 확인되는데, 특히 5호 분구묘는 다른 무덤과는 달리 1기의 시신만을 안치한 단독무덤으로 부장리 분구묘의 수장의 무덤으로 추측되어 진다.

무덤주위에는 U자형 도랑을 봤는데, 도랑은 다른 무덤과의 구분을 짓는 표식의 기능을 하면서 봉분을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판단 된다.



학예연구사
이 강 열



해미면 기지리유적



예천동 유적

분구묘 출토유물은 5호분구묘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분묘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철제 초두가 주목되어진다. 금동관의 경우 백제시대 유적에서 7개밖에 확인된 유물이며, 철제초두 또한 제사 때 사용하는 도구로 그 희소성이 매우 크다. 이외에도 고리큰칼, 금동귀고리, 철제무기류와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중국 동진제 청자 등이 출토되어 백제시대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미면 기지리 국방과학시험장 부지에서도 60기가 확인되었는데, 발굴조사 전 무덤의 봉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덤의 크기는 대체로 10m 정도 내외이며, 추가로 매장할 경우 무덤의 봉분을 연접하여 만들어 졌다. 특히 무덤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매장시설을 조성한 후에 봉분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의 분구묘와 차이를 보인다. 출토 유물은 철정과 토기, 청동거울과 청동방울, 장신구인 구슬류가 출토되었다. 기지리 분구묘유적과 바로 인접하여 확인된 분구묘 유적이 있는데, 이들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적을 원상대로 정비하였다.

예천동 유적은 동서간선도로가 개설되는 도로부지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모두 103기가 확인되었다. 현재 발굴조사 중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이 유적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산지역 최다의 분구묘가 확인된 유적인만큼 유적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주목되어 진다. 무덤은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매장하였고, 분구묘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를 비롯하여 청동제 검집 부속구가 출토된 점이 주목되며, 철검, 철정과 같은 철기류, 다량의 구슬이 출토되었다.

이들 세 곳의 분구묘 유적은 모두 해발고도 50m 내외의 낮은 구릉지대로 예전에는 유적지 근처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분구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경우 백제 중앙지역은 공주나 부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색을 띠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앞으로 서산지역에서 백제시대 분구묘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 유적을 통해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오도캠핑의 매력...

우리도 캠핑 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해가 된다. 사람들 기억 속의 캠핑은 대부분 유쾌하지 않다. 캠핑하면 비좁은 텐트와 불편한 식사, 지저분한 화장실과 샤워장, 무질서가 판을 치는 캠핑장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 시큰둥할 수밖에. 특히, 여성들은 콘도나 호텔 같은 쾌적한 숙소를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캠핑이다. 요즘의 캠핑은 분명히 다르다. 캠핑장비의 진화는 캠핑장도 집 부럽지 않게 안락하게 만들어준다. 사계절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과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이다. 가족 중심의 캠핑이 주를 이루면서 캠핑장은 예의가 넘치고, 질서가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별반 반응이 없던 여성들도 한두 번 캠핑을 갔다 오면 마니아로 돌변(?) 한다. 특히, 캠핑장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나면 곧바로 지름신을 모시게 된다.

캠핑의 확산은 레저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레저는 남자 중심적이었다. 주말이면 남자 혼자 낚시를 가고 골프를 즐겼다. 그 시간 가족은 소외됐다. 그러나 캠핑의 중심은 가족이다. 부모와 자식, 부부가 함께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넓히는, 아주 특별한 레저다. 따라서 캠핑의 확산은 가족의 재발견이자 레저



김 산 환
(여행레저 전문가)

문화의 진화를 의미한다.

오토캠핑 장비의 진화는 눈부시다. 비가 줄줄 새던 텐트의 기억은 잊어도 좋다. 주방과 생활공간이 있는 리빙룸과 침실이 분리된, 원룸 아파트만한 텐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돛자리 위에 어설피게 밥상을 차리는 일도 없다. 테이블이 있고, 안락한 의자도 기본이다. 이처럼 캠핑장비는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 주고 있다.

캠핑의 수준에 맞게 캠핑장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캠핑장은 바닷가나 계곡에서 여름 한 철 운영하는 야영장이 전부였다. 그때는 관리의 손길이 전무한 화장실과 취사장이 캠핑을 맞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계절 개장하는 오토캠핑장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조성하는 오토캠핑장은 선진국의 캠핑장 부럽지 않다.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과 깨끗하게 관리되는 취사장, 텐트 곁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편리성 등이 한데 어울리면서 캠핑문화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캠핑의 전부는 아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캠핑의 진실은 자연과 가족, 그리고 휴식이다.

캠핑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육체적인 작은 불편함을 견디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린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잊혀가는 자연의 소중함에 눈뜨게 되는 것이다. 텐트 안에서 가만히 귀 기울이면 자연의 소리가 찾아온다. 새소리, 벌레울음소리, 바람소리,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 빗방울 굿는 소리, 눈이 나리는 소리... 이 전에는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모든 소리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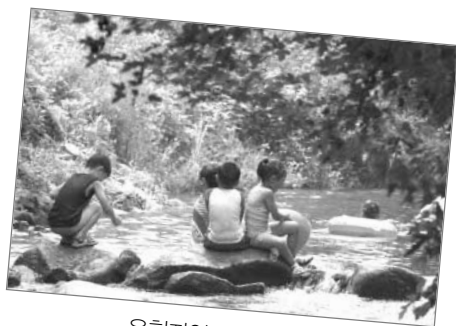
가족도 캠핑의 동반자다. 이전의 아웃도어는 나, 혹은 개인이 중심이다. 그러나 캠핑은 가족이 함께하는 아웃도어다. 아이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캠핑보다 좋은 선물이 없다. 캠핑장에서 아빠와 엄마,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새삼 확인하며 '가족의 재발견'을 하게 된다.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을 살던 구성원이 캠핑을 통해 가족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서로에 대해 배려하게 된다.

휴식도 캠핑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주방을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귀찮고 피곤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할애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고, 숲을 거닐고, 사색의 창을 열다보면 어느 순간 별거벗은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나는 나는 '참된 나'다. 일말의 걸치레와 거짓이 없다. 그런 자아와 마주하고 나면 자신이 삶의 진정성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서해와 접한 충남 서산권은 오토캠핑의 보고다. 수도권에서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이 있다. 서산에는 용현자연휴양림이 캠퍼들의 사랑을 받았다. 비록 오토캠핑장과는 구별이 되지만 짙은 숲 그늘 아래 놓인 데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매력 있다.

태안은 바다와 접한 오토캠핑의 메카다. 학암포에는 국립공원에서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대단위 솔숲과 어우러진 몽산포 오토캠핑장은 여름은 물론 한겨울에도 인기가 높다. 또 팜카밀레는 허브정원 한 곳에 캠핑장을 조성, 단 10팀만을 받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전쟁이 벌어진다. 이밖에 청포대와 구례포 석깍이가 봄~가을 개장하고, 기지포는 여름 한 철만 캠핑장을 운영한다.

서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더 내려가면 보령과 서천이다. 보령에도 보물 같은 오토캠핑장이 많다. 대천해수욕장 곁에 있는 나래뜰은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캠핑을 하면 자연적인 기부도 하게 된다. 그들이 부족한 여름보다 봄가을이 좋다. 최근에 개장한 개화예술공원은 테마파크를 방불케할 정도로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다. 200동 이상의 텐트를 수용할 만큼 대규모다. 이밖에 숲그늘이 좋은 오서산 자연휴양림과 성주사지 자연휴양림도 휴식하기 좋은 곳들이다.



용현자연휴양림



태안 몽산포 오토캠핑장



태안 팜카밀레 오토캠핑장



보령 개화예술공원






아이돌 (Idol)

요즘 가끔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다. “아이돌 그룹 유행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평론가라는 직업이란 사실 반쯤은 예언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기 전에 한 빨리 덧붙인다. “하지만 올해가 중요한 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이걸 예언은 아니지만 전망 정도는 된다. 그리고 그 전망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사실 아이돌 그룹이 이런 종류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것은, 과장 좀 섞어서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 중에는 ‘오빠 오빠’ 이러면서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던 따님 생각이 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때의 인기와 지금의 인기는 종류가 좀 다르다.

차근차근 짚어 보자. H.O.T.와 젝스키스 등, 이른바 ‘1세대 아이돌’이라 불리는 초기 아이돌 그룹 이전에는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소방차나 박남정이 있지 않았냐고? 그 사람들도 ‘댄스 음악’을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들은 ‘오빠 부대’와 ‘팬클럽’을 몰고 다니는 ‘인기 가수’였다. 조직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아이돌’은 아니었던 셈이다. 일본식 스타 시스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1990년대 후반에 SM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획사를 통해 출현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아이돌의 팬들은 경계가 명확했다. 10대 소녀들 말이다. 그 외의 음악 팬들에게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아이돌의 인기란, 아무리 인기가 높았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폐쇄적’이고 ‘마니아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더걸스가 “Tell Me”를 히트시킨 2007년 경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Tell Me”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재미있는 춤이 UCC 동영상을 통해 퍼지면서 이런 인기로 기름을 부었다. 이에 따라 아이돌 역시 ‘넓지만 폐쇄적인’ 팬덤 중심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대중 일반’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많은 아이돌 그룹, 그 중에서도 걸 그룹들이 등장했는데, 원더걸스가 불러일으킨 열풍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것은 소녀시대일 것이다. 그룹의 히트곡 “Gee”는 ‘국민가요’가 되었으며, 소녀시대의 ‘삼촌 팬’들은 아이돌 그룹의 팬이 되는 것이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인식을 없애는 데 공헌했다. 더불어 H.O.T. 등의 아이돌 그룹 팬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며 소위 ‘팬질’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하게 굴게 되었다는 점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음악적 질이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해야 한다. 초기 아이돌 음악이 표절과 가창력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소녀시대를 비롯하여 브라운 아이드 걸스, 2NE1 등의 음악은 ‘본토’의 유행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나름의 독자적인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럼 올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잘 나가면 좋은 게 아닌가. 하지만 불안 요소들이 있다. 우선 최근의 아이돌 그룹 시장은 과포화 상태다. 이젠 어지간한 음악 팬들도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또한 커진 시장규모에 비해 대부분의 기획사는 ‘영세 업종’ 수준이며, 대형 기획

사라 하더라도 사장 혼자 독단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아이돌 그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스캔들 역시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2PM 사태는 아이돌 산업의 어두운 일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쏟림 현상' 이 불러온 피로감이 있다. 올해 신곡을 발표한 아이돌 그룹들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 열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식은 게 사실이다. 결성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f(x) 같은 그룹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고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 난관을 나름의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아이돌이 흥하건 아니건 간에, 최근 몇 년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무척 흥미로운 기간이었다는 점 만큼은 확실하다. 어리디 어린 소년 소녀들의 춤과 노래에 음악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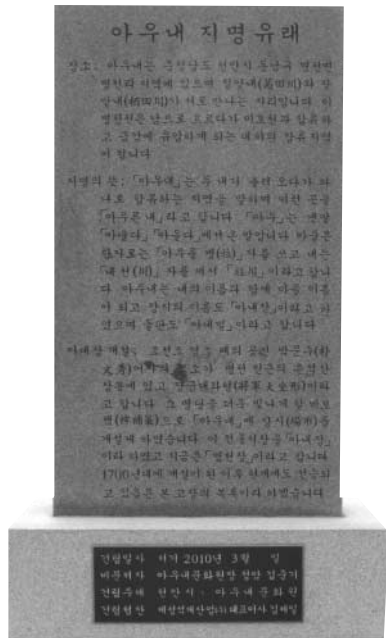


글쓴이 소개

최민우

- 대중음악 평론가
- 대중음악웹진 [weiv](<http://weiv.co.kr>) 편집장

아우내 전통시장



아우내문화원장
김준기

아우내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옛 지명이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을 이르는 이름이다. 아우내의 뜻은 두 내가 흘러오다가 하나로 합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아우내라고 하였으며 줄여서 부르면서

‘아우내’ 또는 ‘아내’ 라고 하였다. 「아우」는 옛말 「아울다」, 「아올다」에서 온 말이다. 아우내를 한자로 쓸 때는

「아우를 병자(竝)와 「내천자(川)」를 쓴다. 아우내는 내의 이름과 함께 마을의 이름이 되고 이곳에 개설된 전통시장의 이름도 「아내장」이라고 하였으며 내를 중심으로 펼쳐진 들판도 「아내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지방의 「아우라지」도 비슷한 지리다.

‘아내장’ 이 개설된 데에는 풍수와 관련한 일화가 전하여 오고 있다. 조선 영조대의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朴文秀)공은 그 묘소가 병천 인근의 은석산(銀石山)상봉에 있다. 풍수가(風水家)들이 말하기를 묘역의 형국이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이라고 한다. 이 명당의 기운을 일으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 비보책(裨補策)으로 「아우내」에 장시(場市)를 개설케 하고 운집하는 장꾼을 군사에 비견케 하였다고 한다. 이 전통시장을 「아내장」이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병천장」이라고 부른다. 충북 청천장(靑川場)도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고 한다.

1700년대에 개장된 「아내장」은 영·호남 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옛적에는

크게 번창하였다. 흔히 말하기를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답니
다.” 라고 하였다. 향시(鄕市)로써 발전한 명소이다. 이곳의 유
명한 식품으로써 전국에 알려진 것이 「순대」이다. 식품을
상징으로 하여 거리의 명칭을 정한 곳은 이곳이 최초라고 한다.
‘아우내 순대거리’ 는 천안시 12경(명소)중의 하나로 지정되
었다.

이 순대길에는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있으며 거리의
중부지역에는 지도를 새겨 넣은 아담한 아우내 지명유래비가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널리 알려진 바의 유관순 열사
추모각이 있다. 그리고 조병옥(趙炳玉)박사의 생가가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마주보고 있다. 조박사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
에서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진력한 분
이다.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 특사로서 활약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셨다.

인접한 목천(木川)에는 독립기념관이 웅장한 자태를 과시
하고 있으며 소재지에는 이동녕 선생의 기념관이 있다. 이선
생은 형제분들과 함께 전가재와 신명을 받쳐 독립운동을 하시
다가 순국하신 분이다.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충절의 고장임
을 실감케 하는 명소가 연이어 있다.



아우내 장터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이동녕 생가



이동녕 생가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산교육의 마당”

사라져가는 우리 살림 지킴이 떡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의 모습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이자 산교육의 마당이다. 박물관이 생기게 된 것을 운속자 소장이 수집한 소장품을 모아 1999년 3월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옛 부엌살림전’을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시를 보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옛 부엌살림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우리의 부엌살림 유물들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차에 2002년 1월 그동안 모아온 소장품 2,000여점으로 지금의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떡은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중요한 전통음식이다. 떡 박물관에서는 시절마다 달리 만들어 먹었던 다양한 맛과 모양의 떡은 물론, 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찌떡, 찰떡, 지진떡, 삶은떡으로 분류하여 떡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만들 때 필요한 조리기구들과 일생동안 맞게 되는 중요한 의식 때마다 함께 한 떡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1층 한켠에는 떡카페 “질시루”도 운영중이다.





장독대



통과의례상차림



떡박물관 내부전경

떡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주발, 종지, 수저, 떡살, 떡메, 절구 등 일상적인 것들이다. 비록 투박하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다.

떡 박물관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추억과 향수의 공간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인 떡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 작은 문화공간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고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해 생각해보며 음식 문화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떡 박물관에 와서 한국의 식문화를 느껴보길 바란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64-2번지

대표전화 : 02-741-5447

관람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공휴일 12:00~17:00

휴 관 일 : 설날, 추석

홈페이지 : www.tkmuseum.or.kr

※ 외국인 전통식문화 체험시 박물관 관람 무료, 한국어 유료증 증명



향기로운 배움의 터



강 명 희
(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하얀 연잎 모양의 보자기 위에 꽃양귀비를 가지런히 내려놓자 아이들의 눈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이 났다. 화려한 색깔, 달콤한 향기에 길들여져 있던 요즘의 아이들에게 그 소박한 장식은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했나보다. 이렇게 향기로운 배움의 터, 다도교실이 시작되었다.

다도 선생님의 고운 모시 한복을 연신 매만지며 “선생님 한복 색이 너무 예뻐요” 라고 금세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연의 색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 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했다. 처음 서산 문화원의 “찾아가는 다도교실”을 신청할 때에는 아이들이 다도를 통해 예절을 익히고, 차를 나누어 마시는 과정을 경험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할 생각이 컸지만 첫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茶道교육은 그 자체로 평소 잊고 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심미감을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겠다란 생각을 하였다.

茶道(다도)교실을 통해 바른 몸가짐에 대해 배우고 차를 우려내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다림을 경험했다. 친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우려내준 차를 공손하게 받아들고 차를 음미하며 “아, 맛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배려, 아기자기한 다기를 다루는 몸짓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예의바름, 차를 우려내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차가 우려지는 과정을 보면서 은은한 자연의 색깔, 자연에서 나오는 향을 느끼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였다. 차를 음미할 때마다 “선생님 색이 점점 변해가요”, “선생님 흠냄새가 나요”, “선생님 누룽지처럼 고소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눈을 맞추고 웃는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여유와 행복이 느껴졌다.

유아기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아중심성이 가장 강한 시기이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과 바른 습관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서산문화원의 “찾아가는 다도교실”을 통해 다른 사람과 차를 나누어 마시는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대접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평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에만 익숙해 있던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바른 몸가짐을 익힌 귀중한 시간이었다.

몸으로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차의 향기로움을 기억하며 다도교실에서 느낀 나누는 아름다움을 떠올릴 것이다. 다도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은 “선생님, 국화차도 마셔보고 싶어요.”, “선생님 집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정성껏 차를 우려내 대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전해주는지 느꼈던 아이들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한다.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준 해준 강사님과 서산문화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어린이들이 향기로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주시기를 기원해 본다.



서산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모집기간 : 2010. 8. 23(월) ~ 8. 27(금)
- 강의기간 : 2010. 9. 6(월) ~ 11. 26(금)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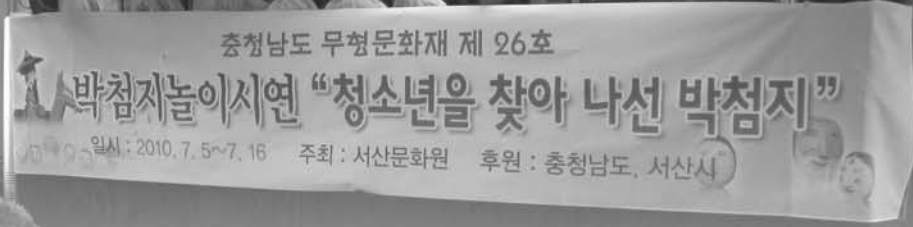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 - 오전 9시부터 정원내 선착순(수강료 완납)
-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강좌마다 접수시작일이 다릅니다.
-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별도이며 개인부담입니다.

※ 한국화, 바이올린, 플룻, 장구중급, 요가, 전통무용, 서예, 중국어중급, 전통민요, 다도는 2010년 상반기 수료증 발급자에 한해 8월 20일(금) 미리 접수받습니다.

강좌명	시 간	정원	대상	강 의 내 용	수강료(3개월분)	준비사항	접수시작일
아동 · 청소년 프로그램							
키즈발레	월·수 A반 16:00~16:50 B반 17:00~17:50	각반 15명	6,7세	자세교정을 돕고 유연성을 기르는 키즈발레 (유치부 2004년~2005년생)	60,000원	간편한 복장착용 발레슈즈	8. 23 (월)
	화·목 16:00~16:50	15명	초등 1,2	A반: 처음 배우는 어린이 / B반: 상반기 또는 2009년 수강 어린이 ※ 미취학 아동 접수시 의료보험증 또는 신분증 지참(연령확인)	60,000원		
바른글씨 예쁜글씨	월 17:00~18:00	20명	초등1~3	글씨지도는 어릴적부터~ 연필로 쓰는 예쁜손글씨 지도	30,000원	필기도구 지참	
교양 · 언어 프로그램							
메 이 크 업	10:00 수~12:00	20명	성인	시기와 장소에 맞는 맞춤형 메이크업 지도	30,000원	상담 후 재료 구입 탁상용 거울지참	
중국어 (초급)	10:00 수~12:00	20명	성인	기초부터 배우는 중국어	30,000원	교재지참(17,000원)	
중국어 (중급)	10:00 월~12:00	20명	성인	실생활 중국어 배우기 발성 및 기초회화 가능자	45,000원	교재지참(17,000원)	
네일아트 차밍	10:00 수~12:00	20명	성인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네일아트	30,000원	상담 후 재료 구입 네일도구 지참	8. 23 (월)
도 예	13:30 수~15:30	20명	성인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생활자기 만들기	30,000원	상담 후 재료 구입	
도자기페인팅	10:00 금~12:00	20명	성인	완성된 도자기에 그림이나 문양을 넣어 나만의 도자기완성	30,000원	상담 후 재료 구입	
전통공예 프로그램(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규방공예	월·목 10:00~12:00	20명	성인	기본 매듭과 바느질을 이용한 작품만들기 (보자기, 바늘꽃이 등)	30,000원		
염색공예	화·목 10:00~12:00	20명	성인	여러 가지 염색방법을 배워보고 작품만들기 (스카프, 가방 등)	30,000원	상담 후 재료구입 주2회 수업 (9.6~10.15)	8. 23 (월)
짚풀공예	화·금 10:00~12:00	20명	성인	짚을 주재료로 전통기법을 활용한 작품만들기 (복조리, 방석 등)	30,000원		
자수공예	화·금 13:30~15:30	20명	성인	다양한 문양의 자수를 배워보고 작품만들기 (방석, 노리개 등)	30,000원		
건강 프로그램							
요 가	화·금 10:00~12:00	25명	성인	온 몸의 감각을 깨우고 건강을 위한 요가지도	60,000원	편안한 복장착용	8. 23 (월)
벨리댄스	월·수 14:00~15:30	25명	성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벨리댄스 지도	60,000원		
행복한 예비엄마 프로그램(임산부강좌)							
펠 트	목 13:30~15:00	25명	성인	베넛저고리와 아기용품 만들기	20,000원	상담 후 재료구입 8주 수업(10.29까지)	8. 23 (월)
요 가	화·금 13:30~15:00	25명	성인	원활한 분만과 태아 건강을 위한 임신부요가	40,000원	간편한 복장 착용 8주 수업(10.29까지)	

강좌명	시 간	정원	대상	강 의 내 용	수강료(3개월분)	준비사항	접수시작일
문화 · 예술 프로그램							
장구(초급)	10:00~12:00	15명	성인	기초 풍물장구 지도	45,000원	장구채, 필기구 지참	8. 24 (화)
장구(중급)	16:00~18:00	15명	성인	굿거리장단부터 변형장단까지 다양한 장단 수업	60,000원	필기구 지참	
한 자	13:30~15:30	20명	성인	기초한자와 고사성어 배우기	30,000원	필기구 지참	
한문서예	13:30~15:30	20명	성인	기초부터 시작하는 한문서예	30,000원	문방사우 준비	
다 도	10:00~12:00	15명	성인	다도예절과 차음식 배우기	45,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난 타	13:30~15:30	15명	성인	모듬북을 이용한 연주로 상상력과 색다른 리듬을 만들재 (초급과정)	45,000원	복채준비	
플룻(초급)	10:00~12:00	15명	성인	초보자부터 시작하는 플룻지도	45,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플룻(중급)	10:00~12:00	15명	성인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개인별 플룻지도	60,000원		
수 채 화	10:00~12:00	15명	성인	기초소묘부터 정물화, 풍경화 지도	45,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한글서예	13:30~15:30	15명	성인	판본체부터 시작하는 한글서예	30,000원	문방사우 준비	
전통무용(초급)	10:00~12:00	20명	성인	무용 기본동작과 한량무 배우기	30,000원	버선,풀치마 간편한 복장착용	
전통무용(중급)	10:00~12:00	20명	성인	입춤, 선비춤, 살풀이 배우기	30,000원		
전통민요	13:30~15:30	20명	성인	전통민요와 가락장구 배우기 풍년가에서 뱃노래까지~	30,000원		
바이올린	10:00~12:00	15명	성인	바이올린 잡는 법부터 연주까지 수준별 개인지도	45,000원	악기, 보면대 지참	
한 국 화	10:00~13:00	15명	성인	문인화와 사군자 그리기, 한국화 이용 소품만들기	6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3시간 수업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							
풍 선 아트, 페이스페인팅	10:00~12:00	20명	성인	다양한 풍선작품과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3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가능	8. 24 (화)
폼 아 트	13:30~15:30	20명	성인	스티로폼으로 예쁜 소품을 만드는 폼아트 지도	3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가능	
클레이아트	13:30~15:30	20명	성인	다양한 종류의 클레이아트 작품만들기 (아이클레이, 폴클레이, 칼라점토 중 택일 하여 취득가능)	3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가능	
어린이북아트 지 도 자	13:30~15:30	20명	성인	카드부터 책까지 다양한 북아트 작품만들기 작품을 통한 시험대비	3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가능	
동 화 구 연 지 도 사	10:00~12:00	20명	성인	동화를 들려주어 정서순화와 감성발달을 돕는 동화구연 지도사 준비	30,000원	교재 20,000원 자격증 취득가능	
가베지도사	10:00~12:00	20명	성인	다양한 가베작품을 만들고 수료	30,000원	교구대여 50,000원 수료증 발급	
POP 예쁜글씨	13:30~15:30	20명	성인	붓을 이용한 예쁜글씨 쓰기 다양한 글씨체와 색감으로 다용도 활용가능	30,000원	상당 후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가능	

- 수강생 신청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 폐강
- 모든 과목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제외)
- 수강료 환불 : 9월 10일까지(9월 10일 이후 월별 수강료 환불)
- 자세한 강의계획은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http://seosan.cult21.or.kr>)
- 문의 : 041) 669-5050(서산문화원 사무국)
- ※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산서림유치원을 찾아온 박첨지놀이 공연

서산문화원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오는 박첨지놀이 시연 '청소년을 찾아 나선 박첨지' 공연이 우리 아이들을 찾아왔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공연으로 우리 아이들만큼이나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단을 맞이하였고, 공연단들 역시 공연 3시간 전부터 정성껏 무대를 꾸미고 막을 치며 분주하게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공연에 앞서 서산문화원 이준호 원장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박첨지 놀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놀이꾼들의 사물놀이 장단과 함께 시작된 인형극놀이에 아이들은 금새 빠져 들어 박첨지의 능청스런 연기에 아이들과 교사 할 것 없이 박장대소하였다. 양반사회를 해학적으로 풍자한 이 놀이 공연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함은 물론 한 시대의 퇴폐적인 생활상을 순수 예술적인 감각으로 극화시킨 색다른 인형극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은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박수로써 공연단에게 보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형극을 관람 한 후 공연단과 아이들이 '박첨지 놀이' 시연을 함께 해보면서 보는 사람들을 웃음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이 인형극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놀았던 놀이를 유일하게 인형극으로 보존해 오는 뿌리 깊은 전통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가치가 무엇보다 크다.

이 날의 공연을 통해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잠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원의 배려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내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담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잊혀져가는 고유문화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산서림유치원장
백진숙

문

화

원

소

직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지역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8월 23일(월) ~ 27일(금)
- 강의기간 : 9월 6일 ~ 11월 26일(3개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 - 오전 9시부터 선착순
- ※ 전화접수와 인터넷접수 불가
- ※ 재료비 별도로 개인부담
- ※ 일부과목에 한하여 2010년 상반기 수료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8.20(금) 미리 접수 받습니다.
- ※ 성인과목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한월빙설」 제2판 출간

독립운동가 한월당 김상정 선생의 유고집 “한월빙설”을 재판하여 증간합니다. 서산의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애국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 발 행 일 : 8월 5일
- 발행부수 : 500부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성연면) 3,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서종심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석림동) 5,000원 |
| • 김상태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임갑순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 김연희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안희승 (서산시 죽성동) 20,000원 |
| • 이양진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김덕환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30,000원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